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의 동향과 전망

김 정 녀*

1. 머리말
2. 가부장적 사회구조 하에서의 여성 인물 형상
 - 2.1 여성중심적 시각에서 여성 인물 다시 보기
 - 2.2 여성의 자아실현 및 정체성 탐구에 대한 논란
3. 여성 작가/작품에 대한 발굴과 재조명
 - 3.1 여성 작가/작품 발굴하기
 - 3.2 '여성소설'과 '여성주의적 글쓰기'에 대한 재조명
4. 여성적 특징에 대한 재발견
5. 과제와 전망

*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연구교수

국문초록

본고는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가 남성중심적 시각을 폭로하고 문제를 제기하던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를 가능해보고자 그간의 연구 흐름을 개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여성주의적 연구방법론을 개척한 초창기 연구자들은 남성중심적 시각에 의해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가 여성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는지를 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평가절하되었던 작품 또는 작자의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한몫을 하였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 인물을 재해석하려는 시도 이후 여성중심적 시각이 보다 뚜렷이 반영된 여성영웅소설을 위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여성의 영웅적 활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남장 모티브'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견이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논의는 다시 여성영웅소설을 당대 독자들의 통속적 욕망의 발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한 진지한 도전이 내재된 작품으로 볼 것인지 등의 주제의식과 연결되면서 쟁점화되었다. 그러나 여성 인물의 자아실현의 여부나 정체성 탐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적 성취로만 단일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며, 오히려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서 여성들의 다양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가운데, 묻혀 있던 여성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여 재평가하려는 시도 또한 주요한 연구 동향 중 하나이다. '여성소설'의 특징, '여성의 글쓰기 방식' 및 '여성성'에 주목한 일련의 논의들은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성소설을 '여성 작가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여성성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간주했을 때 '여성성'의 개념과 범주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여성성'이 덜 반영되었거나 배제된 여성 작가/작품들의 범주 설정, '여성성'이란 과연 고정불변한 것인가? 등 '여성소설'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국면들이 많이 보인다.

최근 '여성주의적 연구'는 인물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여성 화자/서술자/여성적 언술 방식에 대한 연구 방면에서 보다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가부장적 담론에 억압된 여성의 언술' 속에서 '여성성'을 탐색하고자 한 일련의 연구'는 당대 여성의

실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장르에 따라, 작품에 따라, 개별 인물의 계층적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현되는 연술 방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 그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이미지 연구를 지나 여성 작가/작품을 발굴하고 '여성적 글쓰기 방식', '여성성' 등에 대해 고찰한 여성주의적 연구는 결국 여성소설의 특징, 여성 특유의 서사 전략 등을 예각화시켜 보여주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작가의 성별이 작품의 소재나 서사구조, 문체 등을 결정짓는다는 인식은 여성문학을 고립시키거나 한계를 지우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여성주의적 연구가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더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 작가/작품을 발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고소설을 창작하고 읽은 고전 여성들의 삶, 욕망, 자아실현의 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셋째, 여성적 글쓰기 방식, 여성성 등에 대한 논의, 더 나아가 고전여성소설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놓인 공시적, 통시적 맥락뿐만 아니라 장르적 지향도 아우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고소설, 여성주의적 연구, 여성소설, 여성적 글쓰기, 여성영웅소설, 여성문학사

1. 머리말

본고는 고소설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논의한 연구들이 어떤 쟁점을 형성하며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논의의 기반으로 삼은 연구 방법론이 ‘여성주의적 시각’이란 용어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에 따라 ‘여성중심적 시각’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고, ‘페미니즘적 시각’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 구체적으로 특정 연구 방법론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해당 작가의 ‘여성의식’, ‘여성인식’ 등을 고찰하기도 하고, ‘여성소설’, ‘여성적 글쓰기’, ‘여성성’ 등을 표명하며 작품 속에서 여성적 특징을 주요하게 논의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망라하여 편의상 ‘여성주의적 연구’라 지칭하고자 한다. 이런 까닭에 개별 연구자들이 정립한 이론적 틀이나 의도한 바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독자이든 작자이든 ‘여성’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작품의 본질적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 논의들을 ‘여성주의적 연구’라 명명하고 이러한 시각에 의거하여 연구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동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에 개별 용어들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나 차별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 성과를 살피는 도중 언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정작 고소설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연구한 논의들은 몇몇 장르에 치중되어 있을 뿐 그리 많지는 않다. 고소설에 드러난 여성 인물의 형상과 여성의 삶, 또는 작자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제출되었지만, 이들 연구 중 ‘여성주의적 시각’을 표방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서구 페미니즘 이론이 소개되면서부터였다. 그런 까닭에 양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된 것은 아니다. 물론 연구 기

간이 짧은 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여성주의적 시각'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무관심 또한 이 방면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여성 작가와 작품에 대한 발굴과 재평가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시각에 문제제기를 하며 제출된 논의들이 새로운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되 쟁점을 형성하며 논의가 전개된 것들을 중심으로 이 방면 연구가 어떤 도정에 놓여 있는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가부장적 사회구조 하에서의 여성 인물 형상

2.1 여성중심적 시각에서 여성 인물 다시 보기

이 절에서는 여성주의적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두 편의 박사학위논문을 우선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논문들은 여성주의적 연구의 방법적 틀을 마련한 초창기 연구란 점에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소설'과 '여성'이라는 주제어(key word)를 내세워 연구의 선편을 잡은 이는 박명희이다. 박명희는 고소설의 인물에는 한 시대의 문화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으며,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인물이 형상화되었을 경우와 여성중심적 시각에서 인물이 형상화되었을 경우가 같지 않다는 전제 하에 고소설의 여성 인물을 분석하였다.¹⁾ 남성중심적 시각에 의하면 여성은 주변적 존재이며, 남성의 미감을 충

1)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대학원, 1989).

족시켜 주어야 하는 도구적 존재이고, 가부장제에 순응해야 하는 피동적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본능이나 감정을 억압해야 하는 피지배자이다. 따라서 가부장제의 질서에 복종하며 자신의 감정적 욕구는 아예 부정한 채 한 남성의 삶에 순응, 동화된 여성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보상받는 존재로 美化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여성은 惡人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남성중심적 시각은 여성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의적 기호에 따른 유형화된 인물만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중심적 시각은 여성의 입장에 서서 여성의 내면적 욕구와 일상적 체험을 중시하는 태도이므로 남성중심적 시각에 의하여 차단되었던 여성의 다른 면모를 발견, 인격과 개성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여성인물을 남성의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중심에 서도록 하였으며, 남성의 타자가 아니라 자율적이고 주체적 존재로서 자아실현에 대한 지향을 뚜렷이 드러내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중심적 시각은 남성중심적 시각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간주되던 여성인물들을 여성중심적 입장에 서서 재평가함으로써 이전의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인간 존엄과 평등에 대하여 재고할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보았다.

박명희의 여성중심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기존의 여성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적인 예로 처첩갈등을 바라볼 때 표면상 선인과 악인의 대립된 인물 구도로, 인격적 성숙과 미성숙에서 비롯된 갈등이라고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모순과 여성의 성역할 기대치가 작용한 것이라는 논의는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은 진전된 논의라고

판단된다. 남성중심적 시각에 의해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가 여성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논의라고 생각된다.

다만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작품들이 논자의 의도에 의해 취사선택된 점은 아쉽다. 남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 「홍길동전」, 「유충렬전」 등에서는 여성이 주변적이고 보조적 인물일 수밖에 없다. 「구운몽」의 경우도 여덟 여성이 등장한다고는 하지만 양소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여덟 여성에게 보내는 작자의 시선은 각각 1/8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반면 「현씨양옹쌍린기」나 「하진양문록」에는 남녀 주인공의 결연이 작품의 주요 서사를 이끌어가고 있으므로 여성에 대한 성격과 행동 묘사가 남성 인물과 동일한 비중으로 그려져 있다. 「춘향전」, 「홍계월전」, 「노처녀 고독각시」의 경우는 여성 인물이 주인공인 소설이므로 여성의 발화나 여성의 활약에 초점이 놓여 있다. 작품의 주요 서사 전개를 고려한다면, 여성중심적 시각의 배제(홍길동전, 유충렬전, 구운몽)→여성중심적 시각의 부분적 수용(하진양문록, 현씨양옹쌍린기)→여성중심적 시각의 확대(춘향전, 홍계월전, 노처녀 고독각시)는 작자의 '시각' 이전에 이야기를 구성하는 인물에 대한 초점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누가 주인공인가'부터가 작자의 '시각'이 개입된 것임은 자명하나 중심 인물이 여성일 때 여성중심적 시각이 확대되어 나타날 것임은 예견된 결론이다. 그러므로 초점화된 중심 인물의 성별을 넘어서 남성중심적 시각 또는 여성중심적 시각에 의한 인물의 형상화 양상이 어떠한가를 읽어냈더라면 논지가 좀더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또한 '시각'의 개념에 있어 논자는 '문학을 산출해내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태도'로서 '작가의식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논하고 있으나,

이 '시각'이 작품의 전체 지향과 맞물려 작가의식 혹은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선명한 논의가 없는 점도 아쉽다. 여성의 남성적 소망, 용렬한 남성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성, 여성 우위의 장면들이 '여성중심적 시각'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장면 장면들이 작품 속의 다른 장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가의식(작품의 지향)을 드러낼 때는 '여성중심적 시각'을 넘어서 남성 작가의 소망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이다.²⁾

박명희의 연구를 이은 김연숙은 고소설에 나타난 유교윤리적 교훈성, 즉 유교적 윤리의 실천을 작품의 근본정신으로 삼아 독자를 교화하고자 하는 소설의 경향을 '중심지향성'이라 하고, 중심지향성의 정도에 따라 '중심지향적 소설'과 '중심이탈적 소설'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³⁾ 논자에 따르면 중심지향성은 여성들에게 남성 중심의 현실 질서에 순응하도록 길들이는 효과가 크다고 한다. 이런 소설들을 논자는 '여성 길들이기 소설'이라 지칭하고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을 통해 남성중심적인 유교질서를 자신들의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인 구심적인(순종적인) 여성들과 그 반대적 성향을 지니는 원심적인 여성들이 각각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각각 慈母와 淫女, 침묵하는 여성과 거짓말이나 음란한 언어를 쓰는 여성으로 대비되어 구심적인 여성은 긍정적으로, 원심적인 여성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여성 길들이기 소설의 경우 모든 인물들이 수직적으로 서열화되어 있고 여성 인물들간의 관계가 경쟁

2) 일 예로 「하진양문록」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의 '여성주의적 시각'에 작가의 남성적 소망도 다분히 감추어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민조, 「〈하진양문록〉의 창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9).

3)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1995).

적이라는 점, 악인의 선인에 대한 공격으로써의 악행과 그 악행에 대한 처벌이 매우 폭력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점, 서술자의 주석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등을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였다.

중심이탈적 소설 가운데는 가부장적 현실 질서나 제도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남녀의 문제에 관한 한 남성의 입장에서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고, 여성의 처지에서 남녀불평등의 사회 현실이나 제도를 비판하고 여성의 감정이나 주장을 드러내며, 여성 인물이 행동의 주체가 되기를 지향하는 소설이 있는데, 논자는 후자를 '여성 주체적 소설'이라 지칭하고 「위씨절행록」, 「운영전」, 「홍계월전」을 분석하고 있다. 「위씨절행록」과 「운영전」의 여성 인물들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거나 자아실현을 위해 적극적이며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또 여성 인물들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자매애를 보이는 점, 자신들이 속한 공간을 자신을 구속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주석적이거나 권위적인 서술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추출해내었다. 「홍계월전」의 경우는 여성의 시각에서 남성들의 편협함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중심적인 사고의 일면을 보인다고 논의하였다. 계월은 구심적인 면과 원심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여성인데, 이는 소설 창작의 시대적 배경과 독자를 인식한 작가의 이중적인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레인 쇼왈터(Elaine Showalter)는 여성문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즉 ① 지배 전통의 지배적 양식을 모방하고 내면화시키던 단계에서 ② 그것에 저항하고 소수의 권리와 가치와 자주성을 옹호하던 단계, 그리고 ③ 자아발견의 단계에서 여성의 독특한 경험과 특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이다.⁴⁾ 박명희와 김연숙의 논의 구도는

기본적으로 위의 단계들을 원용하여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박명희의 논의가 인물에 보다 치중하고 있는 데 비해, 김연숙의 논의는 인물뿐만 아니라 작품의 구조, 언어, 서술자의 태도 등에 걸쳐 여성주의적 특성들을 읽어내고 있다.

그러나 김연숙의 논의는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고소설의 여성 인물을 분석했을 때 남성중심적 시각에 의해 유형화되거나 하나의 가치만이 해석의 틀로서 국한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해석의 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가부장적 현실 질서에 순응하거나 침묵하는 여성은 길들여진 여성(「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신이 처한 불합리한 모순에 맞서 다른 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여성(「위씨절행록」, 「운영전」, 「홍계월전」)은 자아를 실현한 주체적, 긍정적인 여성으로 해석하는 이분법적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현대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여 당대의 여성에게도 그 모델이 이상적일 수 없으며, 현대 연구자의 시각에서 억압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것 역시 당대 여성에게도 억압의 기제였고 수동적인 태도였던가는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순응하고 침묵한 것처럼 보이는 작품 속 여성 인물의 삶 또한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계산된, 주체적인 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연숙이 유교질서에 순종적이고 침묵한 여성으로 지목한 사씨의 경우, 최근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서 거대한 유씨 집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婦德이라는 이념적 무기를 선택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 여성’⁴⁾이라는 견해와 ‘매사에 단호하고 엄중하며 적극적이고 철두철미

4) 정순진, 「여성주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학과 여성주의비평』(국학자료원, 1987), p.206. 재인용.

한 지극히 이성적 여성'6)이라는 평가가 제출된 바 있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 인물을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시도 이후 남성 지배의 현실 원리,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여성 주인공의 현실적 삶을 어떤 형태로 억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주목할 만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조현설은 「장화홍련전」의 여성 인물 형상을 통해 남성 지배가 작동하고 재생산되는 방식을 정치하게 분석하였으며,⁷⁾ 정출현은 「사씨남정기」를 통해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제하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을 묘파해내었다.⁸⁾ 또 강상순은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가족갈등의 주축인 계모, 요점은 조선후기의 가부장적 직계확대가족 구조 속에 내재된 모순과 그것을 봉합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전략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보았다.⁹⁾ 작가가 가부장제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계모와 요점이란 희생양이 필요했다면, 열녀는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장치로서 종종 동원되곤 했다는 점이 정출현,¹⁰⁾ 김경미¹¹⁾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은 사회 역사주의적 방법론에 의해 주도되었던 고소설 연구와 여성주

5) 지연숙,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현실」, 『민족문학사연구』 17(민족문학사연구소, 2002).

6) 양승민, 「문명권문학으로 본 〈금병매〉와 〈사씨남정기〉」, 『고소설연구』 13(한국고소설학회, 2002).

7)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형상」(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8) 정출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고전소설-〈사씨남정기〉」(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9) 강상순, 「조선후기 장편소설과 가족 로맨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10) 정출현, 「〈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탄생의 메카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11) 김경미, 「17세기 가부장제의 기획-‘류씨부인’ 프로젝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의적 문제의식의 생산적인 접합 가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이 방면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2.2 여성의 자아실현 및 정체성 탐구에 대한 논란

여성주의적 연구 시각이 보다 뚜렷이 반영된 논의들을 일별해보면 논의의 대상이 몇몇 장르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적 여성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선택해야 여성 주인공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지, 자아실현을 위해 어떤 갈등을 겪고 어떤 결과에 도달하였는지 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자가 여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정도라면 굳이 특정 장르에 매이지 않더라도 여성 인물의 형상화 방식이나 작품의 지향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여성에 대한 인식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식, 즉 여성의 자아실현 및 정체성 탐구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영웅소설 만한 역사적 장르도 없을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은 영웅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계월전」은 박명희에 의해 여성중심적 시각이 확대된 작품으로, 김연숙에 의해서는 여성주체적 소설로서 분석된 바 있는데, 작품에 드러난 여성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박명희는 계월의 영웅적 행위는 남성으로 가장한 동안에 이루어지며 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가짜 남성으로서이므로 그녀가 성취한 입신양명은 참다운 자아실현과 거리가

있다고 보았다. 즉 女化爲男의 사회적 의미는 '공적 영역에서의 능력 발현이 남성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성역할 분담의 역설적 확인'이며 여성에게 대사회적인 자아실현의 통로를 차단하고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만을 허용하는 것은 강력한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논의하였다.¹²⁾ 이인경 역시 계월의 여성성보다 평균[계월이 남성으로 변장했을 때의 이름]의 남성성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계월전」의 주인공은 여성영웅들 중 가장 신장된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는 인물이자 여성성을 가장 많이 상실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¹³⁾ 심진경은 계월이 남성 못지않은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대리인 혹은 대리남성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여전히 여성을 가부장제적이고 유교적인 틀 안에 가두려는 이데올로기를 감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분석하였다.¹⁴⁾

반면 김연숙은 「홍계월전」에서 계월의 영웅적 행위는 조선조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반발이자, 감금된 가정으로부터의 탈출이며, 남성중심적인 사회 구조와 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계월의 영웅적 삶은 여성의 恨에 바탕하고서 남성의 횡포를 비판하는 비판의식을 동반하고 있기에 여성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는 역설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계월은 직접적인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여성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¹⁵⁾

12) 박명희, 앞의 논문, pp.42~45.

13)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관악어문연구』 17(서울대 국문과, 1992), pp.245~246.

14) 심진경, 「여장군계 군담소설 〈홍계월전〉 연구」, 『한국여성문학비평론』(개문사, 1995), pp.76~77.

15) 김연숙, 앞의 논문, pp.149~156.

위의 논의들은 ‘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동일한 작품을 분석하더라도 ‘여성 억압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문제적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에서 ‘대안적 전망을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홍계월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강진옥 역시 「이형경전」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여주인공의 자발적 남북개척, 강력한 사회적 자아실현의 욕구, 결혼 거부 및 결혼 이후의 갈등과 여성 인물 중심적 해결 등을 통해 볼 때, 이 작품은 유교적 여성관 아래 제약받는 여성적 삶의 대안적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논하였다. 그리고 이형경과 같은 당대 가치관념에서 이탈한 개아적 욕망추구형 인물의 형상화는 유교적 여성윤리의 제약을 벗어나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자아실현을 추구하고자 한 당대여성들의 원망을 그려내고 있다고 보았다.¹⁶⁾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여성의 남장 모티브’가 있다. 남장을 여성의 현실적 한계로 인식하여 자아실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체제의 모순을 비판하는 장치로 인식하여 자아실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연구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운식은 남장의 의미를 ‘남성우위 문화에 억눌려 살아온 여성들의 집단무의식의 표현’이라 보고 이는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잠재의식의 해방을 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¹⁷⁾ 전용문

16) 강진옥, 「이형경전(이화사전) 연구」, 『고소설연구』 2(한국고소설학회, 1996).

17) 최운식, 「서사작품에 나타나는 남장신부 모티프의 성격과 의미」, 『한국고소설연구』(계명문화사, 1995), p.416. / 여성영웅소설의 출현 배경에 여성 독자들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논지는 민찬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영웅소설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여성독자가 확대되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이 요구됨에 따라 영웅소설의 구조를 물려받고 남녀이합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 여성영웅소설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

역시 당시의 작자와 독자들이 이를 수 없는 것을 여성 주인공으로 하여금 백일몽적으로 성취케 하여 여성의 모든 것을 남성적 차원에서 개척·해결하려는 근대적 의식의 반영으로 해석하였다.¹⁸⁾

반면 박상란은 여성의 자아실현 방식과 영웅적인 자질이 남성과 동일한 수준에서, 혹은 남성적인 기준에서 비교되거나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사고는 진정한 여성성의 계발을 저해한다고 보았으며,¹⁹⁾ 장시광 역시 여성 주인공들이 女化爲男을 하는 이유는 여성이라는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인식한 남성 선망의 표현이며, 이들이 남성으로서 지향하는 것은 부모의 이름을 널리 드날리거나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 등이라는 점에서 작품의 기초에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논의하였다.²⁰⁾ 물론 이들 사이에도 시각차는 존재한다. 박상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의 사회적 진출 및 활약을 통해 여성영웅소설이 근대적인 여성관을 확립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 장시광은 이들 소설을 여성의식의 차원에서 읽어 낼 수 없다고 보았다.

양혜란은 남장을 '사회적 존재로의 편입을 용납 받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틀'이라 보았는데, 이는 김연숙의 논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혜란은 남장의 본질이 자아의 두 층위적 구조를 침범하게 대비시켜 여성이 남성으로 행세하였을 때와 여성으로 행세하였을 때와의 차이, 그리고 그 층위적 차이가 의미하는 사회체제의 모순 등

대적 변모』, 석사학위논문, 서울대대학원, 1986, p.101).

18) 전용문, 『한국여성영웅소설의 연구』(목원대출판부, 1996), p.127.

19) 박상란, 「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석사학위논문, 동국대대학원, 1991), pp.66~67.

20)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1), pp.332~334.

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고 하여 여성의식과의 관련성은 배제하였다. 즉 여성이 여성이란 존재의 본질을 자각하고, 여성으로서 자아실현을 하려는 내면적 통찰을 했다기보다는 사회적 불합리, 특히 여성의 사회적 성차별에 대한 도전으로 여성의 사회성을 쟁취하고자 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남장이란 사회제도적인 개념인 것이지 자아 의식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분석하였다.²¹⁾ 사진실은 양혜란이 논의한 사회체제에 대한 도전적 의미마저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사회의 의식이 여성 자체의 영웅적 면모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웅적 면모라는 것은 남자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보여준 것이므로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의식과는 무관한 통속적 작품이라고 역설하였다.²²⁾

남장 여성 영웅의 일대기를 담은 여성영웅소설들을 당대 독자들의 통속적 욕망의 발현으로만 볼 것인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한 진지한 도전이 내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이 모순에 대한 '해결적 전망'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쟁점화된 논의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한림전」이나 「부장양문록」과 같이 여성적 삶의 제약성을 자각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소망한 여성 인물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새롭게 논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방한림전」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차옥덕은 사회적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남장, 예측적인 여성의 삶을 거부하고 선택한 동성 간의 결혼에

21)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방한림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한국고전연구회, 1998), p.138.

22)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양상」,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上(집문당, 1998), pp.573~574.

서 보여주는 수평적인 인간 관계, 입양한 아들을 통해 후사를 이어 효를 완성하는 모습 등에서 여성을 의존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보며 억압하는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사회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나며, 사회제도적, 생물학적, 이데올로기적, 관습적 갈등의 온축인 女道를 거부하고 진정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두 여성의 모습에서 새로운 여성상의 제안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²³⁾ 한편 양혜란은 이 작품을 여성의 문제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의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수평적 공존의 인간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즉 방관주나 영혜빙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한 여성'의 태도라기보다는 '여성은 수동적으로 남성에게 사랑받는 존재이고 또 그 존재 의의가 남성에게 인정받는 수준으로만 인식되어 있는 당대 사회적 관념과 제도의 틀, 그리고 그 틀에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와 모순 등에 대한 자각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방관주나 영혜빙의 의식과 그 실천적 행동은 '본질적 자아의식의 성장을 넘어서 사회적 성장의 추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⁴⁾

「부장양문록」을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한 정병설은 이 작품이 여성

23) 차옥덕, 「〈방한립전〉의 구조와 의미-페미니즘적 시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한국고소설학회, 1998), p.134. / 강진옥 역시 「이형경전」을 여성중심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방한립전」의 방관주-영혜빙이 보여준 여성들의 결혼은知己 관계로 대변되는 평등하고 대등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당대 사회관습의 제약 속에서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시도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강진옥, 위의 논문, p.119).

24) 양혜란, 앞의 논문, p.141. 논자는 두 여성 주인공의 삶의 방식에 대해 각자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삶이면서도 사회적 명분과 설득력을 얻기에 어려웠던 당대 사회에서 초월적 질서가 개입한 운명성의 논리라라도 이들의 삶의 방식을 용인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의 소산이며 이는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내면의식을 남성의 그것과 차별성을 두지 않으려는 작가의 인권의식의 확대와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pp.147~154).

영웅소설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²⁵⁾ 여성영웅의 우월한 능력과 공적을 드러내 통속적 흥미만을 드러내는 작품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즉 이 작품의 주인공 장소저의 '장부의 마음을 지닌 채 규방에서 한평생을 여자로 살아야 했던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회한은 진지한 여성주의적 모색을 보여준 의미심장한 작품이라고 논의하였다.²⁶⁾

이상에서 살핀 여성의 자아실현 및 정체성 탐구에 대한 논의들 가운데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갖가지 모순들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재평가함으로써 기존의 남성중심적 시각에 의해 평가절하되었던 작품 또는 작자의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가능했던 연구도 없진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새로운 작품들을 발굴하여 그 작품에 담긴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연구자의 노력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작품들을 논의 대상으로 정치하게 분석한 연구의 결과가 천편일률적이라는 사실에는 다소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천편일률성은 남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서 한 번 경험해본 기억이 있기에 그것이 반대편에서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채 양상만 달리하여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이는 비단 여성영웅소설 연구에서만 보이는 것도 아니다. 작품의 장르적 특성, 작중 인물의 계층성, 향유층의

25) 정병설은 「부장양문록」의 여성영웅소설적 특징으로 ①女道を 거부하고 사회 진출의 염원을 지닌 여성 주인공의 등장, ②가족과의 분리를 통한 남성 행세의 여건 조성, ③과거와 외적의 침입 등에서 자신의 文武의 기량 발휘, ④능력의 발휘에 따라 청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女-女の 결합, ⑤가족 상봉 이후 아버지의 엄명 또는 황제의 청혼에 의한 정체 자백, ⑥약혼한 남성과의 동반자적 부부관계 지속 등을 거론하였다.(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p.224).

26) 정병설, 위의 논문, pp.225~228.

차별성, 소재의 다양성 등을 막론하고 그러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 동안 이만큼의 연구가 축적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므로 여성주의적 연구 방법론의 의미나 그 동안의 성과를 퇴색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또 다른 전망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여성 인물의 자아실현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적 성취(사회적인 행동)로만, 그리고 그 사회적 성취를 남성성을 띤 채 이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것은 논의의 틀이 남성중심적이든 여성중심적이든 문제의 소지가 매우 많다. 모든 여성의 경험과 욕구와 관심사가 하나일 수 없는데, 여성의 자아실현이나 정체성에의 탐구 등을 거론할 때는 사회적 자아실현의 형태만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해결적 전망'의 도달점인 듯이 서술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²⁷⁾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서 여성들의 다양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위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바와 같이 여성영웅소설에 형상화되어 있는 여성의 영웅적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도달한 성취를 통해서 여성의식이나 여성의 정체성 등을 탐구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심화된 여성의식을 읽어내려는 몇몇 연구자들은 장편국문소설에 형상화되어 있는 다양한 여성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모성, 婦德 등을 거부하거나 방기하고 자신의 정체성 탐구에 몰두하다 오히려 남성적 질서와 갈등을

27) 양혜란은 여성이 사회적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조선조 사회에서, 여성 인물이 사회적 자아실현을 이루지 못한 것을 두고 그 시대 모든 여성이 자아실현을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에 대해 이론을 제기한 바 있다.(양혜란, 앞의 논문, pp.141~142).

결게 되는 여성 인물을 분석한 이지하²⁸⁾와 임치균²⁹⁾의 논문, 여성성/남성성의 性差에 대한 통념을 재고찰하여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 이경하의 논문,³⁰⁾ 남성 주도의 현실사회가 아닌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인물들을 통해 자아실현의 공간적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길연의 논문³¹⁾ 등이 그것이다. 가부장적 현실 질서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자의적/타의적으로 선택하거나 합의한 결과들, 그리고 그러한 결말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다단한 욕망들을 재도명하려는 시도들은 연구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여성의식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여성영웅소설이나 장편국문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소설로도 영역을 확대하여 각 유형에 드러나는 여성 인물들의 다층적 욕망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3. 여성 작가/작품에 대한 발굴과 재조명

3.1 여성 작가/작품 발굴하기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가운데, 문혀 있던 여성 작가와 작품을

28) 이지하,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데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29) 임치균, 「사랑과 갈등에 대한 남성의 시각 뒤집어보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30) 이경하, 「하옥주論-〈하진양문록〉의 남녀주인공의 기질 연구(1)」, 『국문학연구』 6(국문학회, 2001).

31)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소고」, 『국문학연구』 7(국문학회, 2002).

발굴하여 재조명하려는 시도들 또한 주요한 연구 동향 중 하나이다. 고소설 작가군으로 여성 작가의 존재 가능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한 것은 임형택에 의해서였다.³²⁾ 임형택은 趙在三의 『松南雜識』에 실린 “又翫月 安兼濟母所著 慾流入宮禁 廣聲譽也”라는 기록을 근거로 안겸제의 모친이 지은 ‘翫月’이 현존하는 180권 180책의 「玩月會盟宴」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데 연구자들은 매우 신중을 기하였으며,³³⁾ 정병설에 의해 본격적인 작가론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18세기 초 중반 전주 이씨, 즉 안겸제의 모친인 이씨부인(1694~1743)이 「완월회맹연」의 작자임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³⁴⁾ 정창권,³⁵⁾ 한길연³⁶⁾ 등도 전주 이씨 가문의 집단 창작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다. 물론 여전히 전주 이씨라고 단정짓기에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여기는 연구자도 없지 않다.

정병설은 「옥원재합기연」의 필사기를 토대로 「옥원재합기연」 역시 안겸제의 모친인 전주이씨와 동일 집단에 의해 지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³⁷⁾ 이 작품의 작자에 대해서는 李匡師³⁸⁾나 중인층³⁹⁾이 작

32)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88), p.164.

33) 김진세, 「완월회맹연」, 『한국고전소설작품론』(집문당, 1990), pp.905~928. 임치균, 「조선후기소설의 전개와 여성의 역할」, 사재동 편,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V』(중앙문화사, 1995), pp.1685~1686.

34)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학위, 1997).

35)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학위, 1999), pp.45~46.

36)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학위, 2005), pp.235~240.

37)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작자 재론」, 『관악어문연구』 22(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7).

38) 최길용, 「〈옥원재합기연〉의 작자고」,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아세아문화사,

자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최근 온양 정씨 주도 하에 여러 명의 여성들(변생원 고모, 손주며느리 해평 윤씨, 며느리 반남 박씨, 손주며느리 기계 유씨)이 공동으로 창작했을 가능성,⁴⁰⁾ 강화학과 여성이 창작했을 가능성,⁴¹⁾ 전주 이씨의 친정 질부인 해평 윤씨 혹은 기계 유씨⁴²⁾ 등에 의해 창작되었을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출되면서 작품의 작가가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 연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인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작가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작자들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라는 점이 사안을 좀더 어렵게 만드는 듯하다. 이는 작가와 작품이 놓인 사회 문화적 상황과 함께 소설 창작의 과정, 작품의 의식 성향 등에 대한 논의가 좀더 이루어진다면 머지 않아 연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리라 본다.

여성 작가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 가운데 「소현성록」도 있다. 박영희는 이 작품을 필사한 용인 이씨(1652~1712)의 생존 연대를 근거로, 용인 이씨가 며느리를 맞이한 이후에서 50살 전후의 시기인 1686~1700년 사이에 필사하고 권섭 주변의 사대부 남성이나 양반 부녀자에 의해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⁴³⁾ 정창권은 작품의 여성주의적 소재, 서술형식, 갈등 양상 등을 토대로 '여성의 처지이거나 혹은 여성의 체험을 바탕으로 더욱 인간적인 사회를 꿈꾸던 남성 작

1992).

39) 양혜란, 「〈옥원재합기연〉 연구」, 『고전문학연구』 8(한국고전문학회, 1993).

40) 정창권, 앞의 논문.

41)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원, 2001).

42) 한길연, 앞의 논문.

43)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대학원, 1994), pp.34~50. 이후 박영희는 다른 논문(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에서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17세기 중반까지 끌어올렸다.

가에 의해 지어진 소설'44)이라고 추정하였는데, 이후의 논문에서 여성 창작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논의하였으며, 용인 이씨가 작가일 가능성을 검증하기도 하였다.45) 백순철 역시 「소현성록」의 여성들이 자신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폭력과 권위에 좀처럼 순응하지 않는 점,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섬세하고 사려 깊은 감정 표현, 주변 인물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등 섬세한 정감을 보여주는 점 등을 주목하면서 이 작품의 여성작가적 면모를 고찰하였다.46)

이 외에 김연숙은 작가가 인물의 내면성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점, 편지가 자주 등장하는 점 등을 들어 「위씨절행록」의 작가가 여성일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47) 강진옥은 「이형경전」이 유교적 성역할에 대한 반론을 철저히 일관되게 제기하고, 유교윤리관의 제약 아래서도 이같이 대담한 인간적 모색이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은 소설의 주된 향유층인 여성독자들의 꿈과 그들의 열망을 이해하는 작가들의 문제의식이 만날 수 있는 공감적 영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강한 여성중심적 성격은 여성작가의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48) 정병설은 「부장양문록」에 보이는 진전된 여성주의적 시각을 근거로 이 작품이 여성작가의 작품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았다.49)

「방한림전」의 작자 역시 여성일 가능성이 차옥덕에 의해 강하게 주

44)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한국고소설학회, 1988).

45)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pp.36~39.

46)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창간호(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47) 김연숙, 앞의 논문, pp.101~104.

48) 강진옥, 앞의 논문, p.120.

49)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p.229.

장되었다. 논자는 이 작품이 여성의 시각에 의해, 여성의 경험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도적인 글쓰기’를 한 것이며, ‘여성 억압적인 사고로부터의 자유와 대안을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여성작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⁵⁰⁾ 그러나 양혜란은 「방한림전」의 작가가 여성의 능력과 권리에 긍정적 관심을 갖고 있는 소유자라고 하며 여성 작가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여 이를 허구적 서사체로 표출한 사람이 의식 있는 남성일 가능성도 열어 두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는 작품을 여성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적 부조리의 여러 인권 문제 중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논자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¹⁾

이와 같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 있었거나 무시되었던 여성 작가/작품에 대한 발굴과 재조명은 그 자체로도 고소설사를 풍부하게 해주는 텍스트로서 의미를 지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문학의 전통과 여성문학의 특성을 밝혀내려 데 목적이 있으므로 문학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장에서 살펴볼 정병설의 ‘여성소설’의 특징을 구명한 일련의 논의, 정창권의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및 ‘여성주의적 상상력’에 주목한 일련의 논의들은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할 만하다.

50) 차옥덕, 앞의 논문, pp.115~116.

51)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 pp.152~154.

3.2 '여성소설'과 '여성주의적 글쓰기'에 대한 재조명

정병설은 「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 등에 보이는 '여성적 면모' 혹은 '여성소설적 성격'을 검토한 후⁵²⁾ 그 논의 결과를 '여성소설의 특징'으로 일반화하였다.⁵³⁾ 그리고 이러한 여성소설적 특징들이 남성소설과는 어떤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⁵⁴⁾

논자는 「완월회맹연」의 경우 家中事의 섬세한 서술, 등장인물의 심회가 심도 깊게 분석되고 확대된 점,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 표현,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거나 남편의 사랑을 첩 등의 다른 여성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여성의 바람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작품의 여성적 면모를 읽어내었다. 「옥원재합기연」에 있어서는 여성의 장식에 대한 관심, 전통시대 여성 고유의 임무, 즉 女工에 관한 관심, 여성들만의 체험인 출산 정황 상술, 심리분석의 확대 등을 여성소설적 성격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논자는 '여성소설'의 개념을 설정하였는데, '고전문학에서 여성소설은 여성의식의 수준과 무관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⁵⁵⁾는 전제 아래 '여성에 의해 창작된 소설' 또는 '여성성이 잘 드러난 작품'을 여성소설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여성성'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논자는 남성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여성소설의 특징적 면모를 논의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서지 및 향유 상

52)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21(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53) 정병설, 「한국고전여성소설-연구사와 연구전망」, 『인문과학연구논총』 21(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54) 정병설, 「조선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옥원재합기연〉과 〈옥린몽〉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7(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55) 정병설, 「조선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 p.403.

황 면에서 여성소설은 한글 필사본으로만 존재한다. ②표현 면에서 '대개(대강) 가로되'라는 인용 투어, 속담 등이 빈번히 사용된다. ③장면의 경우 인물의 대화가 길고 심리 분석이 자세하며, 여성의 남장 외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진다. ④서사구조 측면에서 개방적이며, 후편 또는 연작이 있다. ⑤사상 면에서 유교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 ⑥여성성의 측면에서 여성의 경험과 원망이 잘 그려져 있다.

정창권 역시 「소현성록」과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성격을 검토한 뒤,⁵⁶⁾ 여성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묶어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의 특징들을 추출해내었다. 아울러 논자는 장편 여성소설이 여성들의 삶 속에서, 조선후기 소설사 내에서 어떤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⁵⁷⁾

논자는 '여성 작가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표현한 부분, 곧 여성성이 드러난 작품'을 여성소설이라 규정하였다.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으로는 일상생활의 소설화, 대화체를 통한 극적 전개, 다양한 부부갈등을 통한 가부장제 비판과 여성세계 확립 등을 거론하였고,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성격으로는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면서 가문 관리자로서의 여성의 힘을 보여준다는 점, 결혼담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행태를 제시한다는 점, 여성들의 활달한 애정추구를 보여준다는 점 등을 거론하였다.

정창권은 이상의 두 작품 외에도 「옥원재합기연」을 포함, 작품의 창

56)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한국고소설학회, 1998). 정창권,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5(한국고소설학회, 1998).

57)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작 과정과 글쓰기 방식을 통해 여성소설의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여성소설의 실제 창작 과정은 공동 창작과 짜깁기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작자의 생애와 주변 여건들을 다각적으로 재구하여 검토하였으며,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특징적 양상으로 거론하였다. 즉 ①세상사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장황하게 표현, ②자기 주변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소설화, ③사건을 묘사하는 데는 설명보다는 대화를 즐겨 사용, ④신화인지, 전설인지, 민담인지 분간하기 힘든 설화적 표현을 적절히 패러디해서 자주 자유자재로 사용. 이상의 글쓰기 방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소설은 작가들의 교양과 문식이 총망라된 것으로, 논자는 여성소설이 조선후기 여성들의 대표적인 지식수단이자 대중매체이며 삶의 지침서로서 기능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여성소설은 소설사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여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두루 영향을 미쳤다고 논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소설', '여성주의적 글쓰기 방식', '여성성' 등에 대한 연구는 연작소설, 대하소설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앞서 살핀 여성영웅소설 또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하는'58) 여타 장르의 소설에까지 확대, 일반화할 수 있는가? 또 '여성의 경험'과 '여성만의 특성', 즉 '여성성' 등이 덜 반영된, 혹은 배제된 작품들 가운데도 여성 작가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이들의 범주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여성성'이란 것은 고정불변한 것인가? 등 해결해야 할 국면들이 많아 보인다. 이러한 측면들은 연구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58) 이지하, 「고전소설과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망」, 『국문학연구』 11(국문학회, 2004), p.67.

4. 여성적 특징에 대한 재발견

‘여성주의적 연구’의 초창기 연구 동향이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형상을 중심으로, 남성중심적 시각에 의해 그려진 왜곡된 여성 이미지가 무엇이고, 남성적 권위에 도전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주로 연구하였다면, 최근의 연구는 여성 화자, 여성 서술자, 여성적 언술 방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이미지 연구를 지나 여성 작가/작품을 발굴하여 ‘여성의 경험’, ‘여성성’ 등에 대해 고찰한 여성 중심의 연구는 결국 ‘남성의 경험’에서 비롯된 ‘남성성’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여성소설의 특징, 여성 특유의 서사 전략 등을 예각화시켜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여성 작가/작품에 대한 연구는 고소설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하나의 방향에서만 논의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히려 작가의 성별이 작품의 소재나 서사구조, 문체 등을 결정짓는다는 인식은 여성문학을 고립시키거나 한계를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즉 여성 작가가 남성의 내면세계를 서사화한다든가, 여성작가가 일상적인 것이 아닌 역사나 사상을 서사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는 모순되게도 기존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답습하는 폐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후퇴한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담론에 억압된 여성의 언술’ 속에서 ‘여성적 특징’을 탐색하는 ‘여성주의적 연구’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 서술자가 보고자 하는 것, 여성 화자가 말하려는 것, 여성적 언

술로 드러난 것들이 곧 여성의 존재 방식이며, 당대 여성의 실체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언어와 남성 언어의 차이를 작품 속에서 읽어내고 여성 발화와 남성 발화가 각각 어떤 의미 지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개별 장르에 따라, 작품에 따라, 작품 내 인물의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현되는 언술 방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 그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연숙은 「운영전」이 텍스트 전체의 대부분을 운영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어서 문체가 정중하고, 중심지향성이 강한 소설에서 나타나는 폭력성이 보이지 않으며,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회상에 의하여 서술하고 있는 일인칭 회상형 서술자로서 주석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다고 논의한 바 있다.⁵⁹⁾ 그러나 논자가 지적한 바 '문체가 정중하다', '폭력적이지 않다', '주석적이거나 권위적인 서술자가 아니다'는 이른바 여성적 특징들은 기본적으로 「운영전」의 장르적 기반인 '전기소설'에서 기인하는 바이다.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과 같이 선악 구도가 분명한 소설들과는 미감이 다르므로 중심지향성 소설과의 대비 이전에 「운영전」의 장르적 특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경미 역시 「운영전」에서 여성이 서술자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여성들이 거하는 공간, 여성의 내면, 남녀의 정욕에 대한 여성의 욕망, 여성으로서의 자의식 등 여성의 세계가 풍부하게 구현될 수 있었다고 논의하였다. 특히 「운영전」은 여성 서술자를 내세워 욕망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전기소설 속의 여성 인물을 주체의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성취를 이뤘다고 설명하였다.⁶⁰⁾ 그러나 「운영전」이 이룬 성취 중 대화

59) 김연숙, 앞의 논문, pp.132~134, p.166.

60)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와 토론의 과감한 삽입과 변용, 중간적 인물의 역할 증대 및 장편화, 애정의 구현방식과 전개 양상의 변화, 애정 주제의 현실사회적 의미 강화 등은 서술자의 성별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운영전」이 16~17세기 만개한 전기소설이라든가 몽유록으로부터 자신의 작품적 활력을 증대시켜 그 정점을 보인 동시에 해체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⁶¹⁾ 여타의 전기소설과 달라 보이는 「운영전」의 특징적 면모들은 서술자의 성별보다는 「운영전」의 소설사적 위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여성 화자에 주목하여 「강도몽유록」을 분석한 조혜란은 이 작품의 경우 발화의 주체가 여성이 됨으로 인해 당대 실정에 대한 비판과 이념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 인간적 감정의 긍정이라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서술하였다.⁶²⁾ 그러나 여성들의 육성을 통해 병자란 당시의 여성 수난 양상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정절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하며, 비록 절의를 위해 죽어 갔지만 갈등과 안타까운 마음을 지닌 그녀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재구해내었다는 논자의 지적은 이 작품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한 것이다. 이 작품에는 ‘사실 전달’의 의미 이상의 ‘寓意’가 숨겨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도몽유록」은 당시 조정 관료들의 부인 혹은 며느리의 입을 통해 나라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정당당히 맞서 싸우지 않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한 자기 남편 혹은 자식, 혹은 시아버지의 무도한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이 나오게

4(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61)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소명출판, 1999).

62) 조혜란, 「〈강도몽유록〉 연구」, 『고소설연구』 11(한국고소설학회, 2001).

된 데에는 강화도를 실험하게 한 김경징 등에 대한 난후의 비판적인 여론이 작용한 것이겠지만, 여기에는 인조대 반정공신 세력에 대한 비공신사류의 도전이 한몫을 하고 있다. 김류, 김경징, 심기원, 이민구 등과 같은 공신들의 정치적 파행을 인신 공격의 형태로 서술한 것이라든지, 주화론과 척화론을 거론하며 척화론자의 후손 부인을 엄왕이 칭송하는 것, 반정의 명분인 인륜지도와 대명의를 고발하는 언술들에는 공신세력에 대한 비공신사류의 목소리가 우의적으로 반영되어 있다.⁶³⁾ 이를 여성의 발화로, 정절 이데올로기 속에 쓰러져간 여성들의 인간적 감정 옹호로만 읽는 것은 오히려 작품의 문제의식을 희석시키는 것이며 몽유록 장르가 지닌 언표 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한편 「춘향전」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언술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선희는 기생이 정렬부인으로, 나약함이 강인함으로, 갇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맺힘이 풀림으로, 죽음이 삶으로 전환되는 서사적 구성을 설명하였다.⁶⁴⁾ 이러한 논의는 여성의 언술과 남성의 언술을 단순 비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성/여성, 상/하, 주/종, 생/사, 현실/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넘나드는 화합의 장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를 다양한 언술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통해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춘향전」을 읽으면서 ‘애정을 성취한, 정절을 수행한 조선조 한 여인’의 목소리만 분석하는 것은 ‘사회성 짙은 주제적 의미와 애정, 흥과 恨 등의 정서적 반응이 융합된 판소리계 소설’의 특성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논자의

63) 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보고사, 2005), pp.63~79.

64) 신선희, 「〈춘향전〉에 나타난 여성언술의 언술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연구는 '여성주의적 연구'가 경계하고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5.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고소설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한 일련의 결과물들을 대상으로 거칠게나마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처음 본고를 준비할 당시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쟁점을 위주로 연구 동향을 짚어보고자 했으나, 현재 '여성주의적 연구'는 쟁점을 형성하며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보다는 서구 페미니즘 비평이 걸어온 그 길을 단계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쟁점이 형성되며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앞서 살핀 여성영웅소설 정도이다. 쟁점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가야할 길이 멀어서 앞만 보며 달린 결과인지 아니면 '여성주의적 연구' 자체가 지닌 강한 도전과 전복의 기운이 쟁점 형성의 장애 요인이 된 것인지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 본고에서는 여성주의적 연구가 남성 중심적 시각을 폭로하고 문제를 제기하던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를 가늠해보고자 연구의 흐름을 개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이제 '여성주의적 연구'의 전개 과정을 일별한 앞서의 논의를 토대로 이 분야 연구에 요청되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연구'에 대한 어떤 전망을 도출할 만큼 필자의 학문적 고민이 깊지 못함을 시인하고 싶다. 다만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기대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몇 가지 과제를 두서 없이 나열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 작가/작품을 발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

동안 여성작가가 창작한 것이 분명하거나 여성이 창작했다는 방증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부인하려던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존 자료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여성작가의 존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성 작가와 작품의 숫자는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완월회맹연」의 작가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기존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재해석과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반증해준다. 창작과 필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과거의 문학적 전통을 염두에 두면서 어휘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자료가 제시하는 실상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고소설을 창작하고 읽은 고전 여성들의 삶, 욕망, 자아실현의 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현재 여성 의식이나 여성의 자아실현 등을 이야기하는 연구자들의 시각이 사회적 성취로만 단일화되어 있는 것,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출산/육아, 장식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등은 당대 여성들이 모두 똑같은 자세와 표정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계층적,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입지에 따라서는 물론이고 그들이 머문 주거 공간, 그들이 접한 문화 예술의 종류, 교육의 수준, 사용한 물건 등에 이르기까지 낱알의 삶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져야 여성의 경험과 욕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밭 딛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라는 주어진 조건에 단순히 반응한 것이 아니라 조건들을 바꾸고 이를 안정화, 영속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온 삶의 주체자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침묵하고, 길들여진 여성들의 삶 속에 내재화된 남성의 속임수를 읽어내는 것은 물

론 중요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순응했다고 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고 어떤 욕망도 품지 않은 채 '속임수'에 번번이, 철저히 넘어갔으리라고 진단하는 것은 여성을 몰주체적, 몰개성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남성적 시각에 다름 아니다. 큰 보폭뿐만 아니라 작은 보폭에도 관심을 두고 그 보폭의 양상과 향한 지점을 읽어 내어야 당대 여성들의 다양한 고민과 고민을 해결해나간 양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소설의 특징, 여성적 글쓰기 방식, 여성성 등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전여성소설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놓인 공시적, 통시적 맥락뿐만 아니라 장르적 지향도 아우를 필요가 있겠다. 여성의 경험, 여성의 시각, 여성적 언술 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장르적 속성과 어떻게 교직되어 조화를 이뤄내는가를 밝힐 수 있어야 텍스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개괄적으로 논의한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에 대한 성과 가운데 필자의 과문함으로 인해 그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혹 논자의 논지를 오독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모두 필자의 잘못이다.

□ 참고문헌

강상순, 「조선후기 장편소설과 가족 로망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pp.33~64.

강진옥, 「이형경전(이화사전) 연구」, 『고소설연구』 2(한국고소설학회, 1996), pp.73~121.

- 김경미, 「17세기 가부장제의 기획-‘류씨부인’ 프로젝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pp.153~177.
-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pp.35~62.
- 김민조, 「〈하진양문록〉의 창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학위, 1999), pp.67~71.
-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학위, 1995), pp.1~168.
- 김정녀, 『조선 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보고사, 2005), pp.63~79.
- 김진세, 「완월회맹연」, 『한국고전소설작품론』(집문당, 1990), pp.905~928.
-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학위, 1986), p.101.
-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학위, 1989), pp.1~124.
- 박상관, 「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학위, 1991), pp.66~67.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학위, 1994), pp.34~50.
-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문학과 사회집단』(집문당, 1995).
-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창간호(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양상」,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上(집문당, 1998), pp.573~574.
- 신선희, 「〈춘향전〉에 나타난 여성언술의 언술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 심진경, 「여장군계 근담소설 〈홍계월전〉 연구」, 『한국여성문학비평론』(개문사, 1995), pp.76~77.
- 양승민, 「문명권문학으로 본 〈금병매〉와 〈사씨남정기〉」, 『고소설연구』 13(한국고소설학회, 2002).
- 양혜란, 「〈옥원재합기연〉 연구」, 『고전문학연구』 8(한국고전문학회, 1993, pp.321~322).
-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방한림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한국고전연구회, 1998), pp.109~154.

- 이경하,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집(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pp.1~161.
- 이경하, 「하옥주論-〈하진양문록〉의 남녀주인공의 기질 연구(1)」,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관악어문연구』 17(서울대 국문과, 1992), pp.245~246.
-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학원, 2001), pp.155~168.
- 이지하, 「고전소설과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망」, 『국문학연구』 11(국문학회, 2004), p.67.
- 이지하,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데올로기의 파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pp.137~165.
- 임치균, 「사랑과 갈등에 대한 남성의 시각 뒤집어보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pp.169~195.
- 임치균, 「조선후기소설의 전개와 여성의 역할」, 사재동 편,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V』(중앙문화사, 1995), pp.1685~1686.
-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88), p.164.
-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1), pp.332~334.
- 전용문, 『한국여성영웅소설의 연구』(목원대출판부, 1996), p.127.
-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21(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pp.46~62.
-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작가 재론」, 『관악어문연구』 22(서울대 국문과, 1997).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박사학위논문, 1997). 『완월회맹연연구』(태학사, 1998).
-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한국고전문학회, 2001), pp.207~234.
- 정병설, 「조선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옥원재합기연〉과 〈옥린몽〉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7(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pp.401~425.
- 정병설, 「한국고전여성소설-연구사와 연구전망」, 『인문과학연구논총』 21(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 정순진, 「여성주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학과 여성주의비평』(국학자료원, 1987), p.206.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한국고소설학회, 1998), pp.293~327.
- 정창권,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5(한국고소설학회, 1998).
-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원, 1999), pp.1~171.
- 정출현, 「〈운영전〉의 증충적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소명출판, 1999).
- 정출현, 「〈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탄생의 메카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 정출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고전소설-〈사씨남정기〉」,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소명출판, 2003), pp.87~115.
- 조현설, 「남성지배와 〈장화홍련전〉의 여성 형상」,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소명출판, 2003), pp.58~86.
- 조혜란, 「〈강도몽유록〉 연구」, 『고소설연구』 11(한국고소설학회, 2001), pp.329~353.
- 지연숙,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현실」, 『민족문학사연구』 17(민족문학사연구소, 2002).
- 차옥덕, 「〈방한립전〉의 구조와 의미-페미니즘적 시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한국고소설학회, 1998), pp.113~166.
- 최길용, 「〈옥원재합기연〉의 작자고」,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아세아문화사, 1992).
- 최운식, 「서사작품에 나타나는 남장신부 모티프의 성격과 의미」, 『한국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5), p.416.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원, 2005), pp.235~240.
-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소고」, 『국문학연구』 7(국문학회, 2002), pp.325~255.

Abstract

**A Study on the Trend and Prospect of 'Feminist Researches' in
Korean Classical Novels**

Kim, Jeong-Nyeo

This study is focused on summarizing the flow of existing studie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feminist researches' in Korean classical novels from the step that they reveal a male-dominated viewpoint and raise a question. Researchers in the early days who opened up feminist methodology mainly discussed how female image distorted by a male-dominated viewpoint could be reevaluated from a female-dominated viewpoint. Such discussion played a role of enabling serious introspection of existing devaluated works or authors' sense.

Brisk discussions have been continued centered on heroic narrative in women characters clearly reflecting a female-dominated viewpoint after an attempt to reinterpret women characters from a feminist point of view. Objections have been ceaselessly raised against heroic deeds of women, and to achieve them, 'motive of a woman in male attire'. And connected with a sense of the subject matter of whether heroic narrative in women characters should be deemed as expression of common desire of readers in the then age or as works where serious challenge against contradiction of the patriarchal society is immanent, this discussion has been an issue. However, it is problematic that criteria to judge self-realization or explore

identity of a woman character are simplified into social achievement and instead, an effort to understand women's various desires for self-realization is required from a feminist viewpoint.

Among 'feminist researches' in Korean classical novels, an attempt to find out and reevaluate unrevealed female writers and their works is one of the major research trends. A series of discussion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writers' novels', 'women's writing style' and 'feminism' leveled up 'feminist researches' in Korean classical novels. However, if women writers' novels are regarded as 'works displaying feminism' 'on the basis of women writers' personal experience', the concept and category of 'feminism' may be controversial. In addition, a lot of problems shall be solved to generalize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writers' novels' such as establishing the scope of women writers/works where 'feminism' is less reflected or excluded, 'Can 'feminism' be unchangeable?' etc.

Recently, 'feminist researches' are being made more actively on female narrator and depictor and feminist description beyond character-based studies. A chain of studies to look into 'feminism' in the 'description of women suppressed by the patriarchal discourse' are meaningful in that they visually expose the real of women in the days. However, their true meaning will be achieved only when efforts to examine in detail narrative styles differently embodied by individual genre, work and class uniqueness of individual characters are involved.

Feminist researches that have discovered women writers/works and looked into 'feminist writing', 'feminism' etc. beyond studies on female image have ultimately reached visualiz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writers' novels, women's unique narrative strategies etc. However, the

recognition that writer's sex determines the work's subject matter, narrative structure, and literary style has risk of isolating or limiting women literature. The following points are required for feminist researches to overcome the current limits and draw out advanced discussion: first, continuous effort to find and cultivate women writers/works is required; second, detail investigation of the life, desire and mode of self-realization of women who created and read Korean classical novels is required; and third, synchronic and diachronic context as well as genre orientation shall be considered together to describe feminist writing style, discussion about feminism and further, Korean classical women's literary history.

key words : Korean classical novels, feminist researches, women writers' novels, feminist writing, heroic narrative in women characters, women's literary history.

■ 위 논문은 4월 1일 투고되어, 5월 6일 심사완료 후, 5월 1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